**교제와 나눔**

**40-13호 2023년 3월 26일**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ㆍ종려주일:** 다음 주일, 세례 및 입교식

세례-손하음, 이지민, 최준영, 최지윤. 입교-강병주, 민지음, 민채우, 최민찬

**ㆍ부활주일:** 4월 9일 주일 연합예배, 성찬식 **ㆍ나라주일:** 4월 16일 주일

**ㆍ세례 및 입교 교육**: 예배 후 Teestube 윗층, **문답**: 다음 주일 13시Teestube

**ㆍ라합2 나라 모임:** 3월 29일(수) 10시 박희영 님 사업장(호텔 Ko)

**ㆍJC캠프:** 4월 10일(월)-13일(목) CVJM Wilnsdorf, Die Gute Nachricht, 박보도 목사

**ㆍ남선교회친선체육대회:** 4월 15일(토) Teestube 및 디아코니 운동장

**ㆍ연합어린이여름성경학교 1차 준비모임:** 4월 22일(토) 쾰른한빛교회

**ㆍ함부르크 Volksbank의 장애인선교단 ‘유럽밀알’ 후원 프로젝트:** 카톡에 안내

**ㆍ뒤셀도르프한인교회 창립50주년 기념 말씀잔치**: ‘진리, 사명, 교회의 미래’

3월 31일(금) 15시, 4월 1일(토) 15시 뒤셀도르프한인교회(강사 김재완 목사)

**6대 담임목사취임예배:** 4월 2일(일) 14시, **50주년 축하음악회**: 4월 29일 17시

**ㆍ생일:** 김종권

**ㆍ사임:** 김요한 목사(3월 마지막 주일), **부임**: 박승은 목사(4월 첫 주일)

**\*\* 함께 기도합시다 \*\***

1)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

2)모이기에 힘써,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3)코로나19를 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

4)공의와 평화의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5)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말씀일기 일정**

|  |  |  |  |
| --- | --- | --- | --- |
| 일/마24:15-35 | 월/마24:36-51 | 화/마25:1-13 | 수/마25:14-30  |
| 목/마25:31-46 | 금/마26:1-16 | 토/마26:17-35 | 일/마26:36-56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08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3월 26일** | **4월 2일** | **4월 9일** | **4월 16일** |
| **예배기도** | 이선영 | 강일구 | 한상철 | 권순아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김혜경, 박성희 | 김종권, 김호정 |
| **애찬위원** | 밥상 여덟 | 밥상 하나 | 밥상 둘 | 밥상 셋 |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청소년부 14: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5시 30분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인도: 손교훈 목사

 **주 일 예 배(5. Fastensonntag)**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 다함께 |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9장 3절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128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70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이선영 집사 |
| 찬양/Chor ..….................................... 너를 선택한다 ……............... 서민규 | 민채우,민지음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마태복음 24:9-35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징조**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515장 .……………….....…..….……. | 다함께 |
| 봉헌/Kollekte……….................................................................................................. | 다함께 |
| 교제/Bekanntmachung………………….……..…..……………….…...........................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 **※ 표는 일어섭니다.** |  |
|  |  |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마태복음 23:13-28 '껍데기는 가라' ◀**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가 떠오른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시인은 4.19 혁명정신을 강조하며 강렬한 민중의 저항의식을 노래했지만, 썩은 종교권력을 질타하셨던 예수님의 외침과도 맞닿아 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거친 언어를 쏟아내시는 예수님의 분노를 잘 보여준다. 일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열정을 생생히 느낄수 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 일곱번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에 바로 이어지는 단어 중 여섯 번은 '외식'이라는 단어이고, 나머지 하나 조차도 그 내용은 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핵심은 '외식' 즉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문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껍데기는 그럴싸하지만 그 내용은 텅 비었거나 탐욕과 불법으로 가득차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나를 돌아본다. 안과 밖이 확실하게 일치되어 살았다면 과연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 남았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며 가슴이 조여온다. 그래도 그래도 나름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려고 애써왔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힘써왔다고 자위해 본다.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이 나쁘지 않으리라.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기 위해-즉 개인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내용과 형식, 안과 밖이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눈이 멀지 않도록, 안에서 알게 모르게 썩어가는 것이 없도록, 다시 주 앞에 엎드려야 한다. '주님, 내 안을 먼저 깨끗히 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비참한 껍데기 인생 살지 않게 하소서!'